☆ 서정문학 ……

서정문학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해결된다.....
모든 시에는 반드시 시적화자와 대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시공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지...
오늘도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 ?
그렇게 한 주 가고 .....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최면에 빠져.... 어찌보면 또 한 달 지나가고....또 한 달... 그럴수록 너 겁나 잖아?.... 그렇지...!!
자신에게 솔직해봐.....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아지겠니 ? 바뀔거라면 작년에 이미 바뀌고도 남지 않았을까 ? 남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남다른 오늘을 보내지 않는데.... 왜 너는 교재, 학원, 집, 선생님, 독서실 그런 세상 탓만 할거니 ?

대치 이룸 국어논술 전문학원
그곳에 김현종 원장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 02) 2051 - 2727 (카톡 아이디 : komusso) 010-6236-0467
김현종 원장님은 해도 해도 안되는 수능 국어 3-5등급 학생들의 수술만을 전담합니다.
수업 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❼ 번째]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❼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❶~❻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큽니다. !!
이 칼럼은 대치동 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재수생들 요청으로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 시(서정문학)를 만나면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당연히 대상을 찾습니다.
= 좋아.... 크게 따라한다 !!!! 시를 만나면 ?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 바로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 그것만으로 되겠나 ???
= 아닙니다. 각 줄마다 숨겨진 대상에 대한 시적화자의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 오케이.....바로 그거면 무조건 통과야..... 이제 가보자고....!!
인터넷 수능 B형 시부터 해보자고....

조금전 대상을 찾는다.... 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시문학 행동강령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보시면 자동 해결...

오늘은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어떻게 공부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학생과의 대화체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품 분석 후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혹시라도 A형 준비중인 학생이라면 더더욱 이 파일을 보셔야 합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예년 기출과 달라진 6월 평가원을 보시면 시 작품 수가 한 작품에서 2-3작품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B형처럼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지 해석이 현대국어로 국역될 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을 꼭 외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문학 공부를 암기위주로 했다.... = 아...!! 바보처럼 공부했군...
2. 시를 스스로 분석하기 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주입식으로 필기하고 밑줄 긋고... 일제 강점기, 60년대 현대 산업화 시대, 저항시인, 지식인의 고뇌, 소외된 민중, 80년대 군부독재, 현대인의 고독... 이렇게 암기하라는 대로 암기하고 공부한 것이 시문학 답게 공부한 시 공부라 생각했다.... = 역시 바보처럼 공부했군...
3. 한 편의 시를 배우면서 그 시인과 연계된 다른 작품들의 특징속에서 또는 타 시인의 유사한 작품에서 억지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특정 지식을 배우면서 뿌듯해 했다면 = 끝까지 바보처럼 공부했군...

오늘은 ===== 김광균, [광장] 김혜순, [별을 굽다]

항상 여러분께 말하지만 우리는 시문학을 만나면 우리는 학교나 학원에서 혹시 배운 것인가?...라고 있지도 않은 기억을 더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쥐어 짜도 그런 기억이 없을 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또 기대심리로 이거 혹시 EBS 연계 작품인가.... 하면서 머릿속에 진짜 있지도 않은 또 EBS 기억을 끄집어 내려 하지만 결국 상당 시간을 낭비한 후에 그냥 읽습니다.
결국 짧지만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그냥 읽습니다.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1등급을 맞아야 하는데...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막연한 기도를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이거 같다..... 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고민도 확신도 없이 그냥 답을 찍습니다. 그냥 답을 찍으면서도 꼭 1등급을 맞아야 하는데 하는..... 기도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김광균, [광장]

비인 방에 호올로
대낮에 체경을 대하여 앉다

처음 보는 시입니다. 저에게 수업 듣는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이 시의 대상이 뭐지? .... 합니다. 시적화자가 바라다보는 대상은 뭘까? ... 빈 방 ?... 체경(거울)?... // 결국 시적화자는 빈 방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정문학답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 (화자의 정서) 어떤 느낌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찾기도 힘듭니다. 또 시적화자의 어떤 태도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슬픈 도시 ? ....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감정이입은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노출된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 시적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슬픈가 봅니다..... 그래서 어둠이 몰려오는 도시가 슬픈가 봅니다.... 하지만 왜 슬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또 화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화자의 현재 상태는 뭔지 모르지만 슬픈 상태입니다.
화자에게 보이는 시계점 지붕 위 청동 비둘기가 울고 있습니다. 절대로 울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울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또 감정이입입니다. 화자가 슬프면 자동차도 슬프고 구름도 슬프고, 코미디 극도 슬픈 법입니다. 그것이 감정이입입니다. 비둘기가 왜 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적화자는 빈 방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냥 슬프다고 말을 하고 울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걱이는 갈대밭 / 열없는 표목 되어 조으는 **가등**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화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본 도시 모습 같습니다. 초라하게 켜진 가로등도 졸고 있는 도시모습... 저녁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보고 정서나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래 머물필요는 없습니다.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시적화자는 어느 새인가 방에서 나온 듯 합니다. 베옷을 입고 있는지 바람이 차다는 감각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업 때 강조했지만 감각 표현은 무조건 정서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시원하기보다는 화자의 슬픈 감정과 울고 싶은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마음 한 구석에 벌레가 운다... 역시 또 감정이입입니다. 시적화자는 정말로 답답(왜 울고... 왜 슬픈지...우리는 몰라서....)하지만 정말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 하여튼 울고 싶나 봅니다.....

==========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수능 출제자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절대로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묻지 않습니다. 서정문학의 본질을 알고 여기까지 이해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 23년 수능에서 단 한번도 에러난 적 없습니다. 믿으세요... 수능 출제자를 믿으세요.... ==========

========== 여기 저기 해석들을 보면 엷은 베옷을 입은 화자가 모자도 쓰지 못한 채 광장에서 도시 문명을 만나 자신의 고독감과 불안감에 떠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일까요 ?..... 그렇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자가 느낀다는 고독과 불안감이 ...도대체 슬퍼서 우는 시적화자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그 해설과 설명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지만..... 우린 우리대로 접근합니다. ==========

황혼을 쫓아 네거리에 달음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적화자는 황혼을 쫓아 네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적화자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황혼을 쫓는 다는 것은 ... 또 네 거리로 도망도 아니고 쫓으면서 달음질치는 행위.....
분명 시적화자는 조금전까지 어두운 방안에서 거울을 보다가 슬프고 울기까지 했고 또 도시로 나와서도 차갑고 슬프고 운다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또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이것도 시적화자의 태도인데....무엇일까 ?.....
===== 시적화자의 상황을 추리해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화자는 방안에서 외롭게 있는 자신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슬프고 울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를 둘러싼 어둠이 싫어서 혹시나 마지막 희망이나 소망에 해당하는 황혼을 향해 달려 나갔을 것이다....이렇게 추리해봅니다.
===== 모자도 없이는 무엇일까 ?..... 마지막 희망이나 소망을 얘기하는 황혼이라면 그것을 가릴 모자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물어 가는 황혼이라도 모자 없이 그냥 그대로 맞이하고 싶다는 정서...느낌...태도가 아닐까 싶고....
===== 광장에 서다.....는 빈 방에서 마지막 희망을 향해 달려 나왔는데 이미 그 광장에는 나와 비슷한 무리들이 저물어 가는 황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모인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즉 나와 비슷한 무리들이 모인 장소....그곳에서 모두 저물어 가는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음질 치는 곳..... ======== 거의 소설을 쓰네요... ㅋㅋㅋ

==========

걱정하지 마세요. 시문학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깊은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표현) 측면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가 ?

내용적 측면의 물음.... 화자, 대상, 태도 등에 관련된 물음...

독자의 감상적 측면의 물음....

특정 관점에서의 작품분석의 물음...

========== 모두 여러분들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전반 정서는 자신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고독감)

후반 정서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에서 탈피하고픈 시적화자의 의지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시로 넘어갑니다.

김혜순, [별을 굽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은 ?

지하철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 많은 얼굴들...
그렇다면 그 얼굴들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
붉은 흙가면 같고, 많은 저마다의 불가마들이 제각기 구워낸 얼굴들에 대해 놀라움 정도를 표현한 느낌....?
아직은 정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길을 가다 뒤돌아서서 마주친 모습일 뿐입니다.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상들 속에 뭔지 모를 힘이 느껴진다면 그 정서는 무엇일까요 ? ... 바로 놀라움이죠.... 이 글의 정서는 놀라움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즉 상상해 봅시다.... 누구나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에 하품하며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환승역 같은 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들의 걸음소리.... 누가 저들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누가 저렇게 밀물져 가는 힘을 주었을까 ?..... 그 수많은 얼굴들 중에는 아버지 아들, 딸....그리고 어머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 새벽에 저들은 움직일까..... 더 잘 수 있고,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저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무표정으로 있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부릅 뜰 저마다의 동력이 저마다의 불가마가 저마다의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시적화자는 놀랍니다.
========== 역시 시적화자의 정서는 한 마디로 놀라움입니다.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우리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든 분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운명의 별빛을 점지해 주는 하느님(별을 굽다의 제목이 이 뜻입니다.)이지만 그 운명의 별빛은 지상에만 있을 뿐 .... 이렇게 깊은 땅속으로는 들어올 리 없는데.... 아니 닿기나 할는지..... ========== 역시 화자의 정서는 놀라움입니다.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이 시간에 지하에서 움직이는 저 사람들 속에 꿈틀거리는 뜨거움에 대해 시적화자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저마다 딱딱한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고 세우는 뜨거운 불가마.... 분명 가족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또 움직여 .... 결국 밀물져 가는 저 원인 모를 저마다의 내면의 힘에 시적화자는 감동의 또 감동의 쓰나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속에 저마다 하나씩 뜨거운 불가마 하나씩 가지고 있나보다....라고 감탄합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자가 발전기....(자가 용광로...)....자기 얼굴을 직접 굽는 내면의 동력

========시적화자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저 밀물져 가는 사람들 속에 10년 된 불가마, 20년, 50년 된 불가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자기 동력으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늦은 저녁에 저렇게 밀물져 가는 모습을 하는구나.....
========== 시적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놀라움과 예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

정리하자면 EBS 인수에서 두 시를 같이 모아서 출제한 이유를 추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가)시는 애매 모호한 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을 (나)시가 해결해 줍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힘이 있고 저마다의 동력이 있듯

이 (가)시의 화자에게도 무너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의지, 마지막 희망이라도 쫓고 싶은 소망의 모습...빈 방에서 광장으로 달려나간 그 의지적 자세를 (나)시가 간접접으로 보여주지 않았나....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시의 공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도 될 정도로 쉽습니다.... 문제 풀이 생략...!!